

# CONTENT 07

---

## EBS 독서&문학

| 양자 홀 효과

| 구조주의 언어학과 인류학

| 빌려줄 몸 한 채 | 울타리 밖

| 누항사

| 잉여인간

8주차 복습 과제 ②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11

기축 통화는 국제 거래에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 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그는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환 본위제’가 되었다.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환율은 경상 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그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 어떠한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긴다. 그러나 하나의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1.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가 기축 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 ②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의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 트리핀은 어떤 전망을 했는가?
- ③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미국 중앙은행은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했는가?
- ④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인가?
- 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달러화 신뢰도 하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2.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
- ②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 ③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는 트리핀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 ④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공급량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한다.
- 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면,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감소한다.

3.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는 금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보다 하나 적다.
- ② ㉡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 통화라면 ㉡에 비해 교차 환율의 가짓수는 적어진다.
- ③ ㉢에서 국가 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환율의 전체 가짓수도 하나씩 증가한다.
- ④ ㉠에서 ㉡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가 많아진다.
- ⑤ ㉡에서 교차 환율의 가짓수는 ㉢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짓수보다 적다.

4.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의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기축 통화국인 A국의 금리는 인상되었고 통화 공급은 감소했다.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A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주도하여, 서로 교역을 하며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 국가 A, B, C는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을 합의했다. 이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50%, 30% 하락했다.

- ①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겠군.
- ②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여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겠군.
- ③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모두 하락했겠군.
- ④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하여,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 수지는 개선되었겠군.
- ⑤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로 A국의 경상 수지가 악화되며, 그 완화 방안 중 하나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겠군.

MEMO

1문단

기축 통화는 국제 거래에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기축 통화의 ( )287)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 )288) 통화니까 ( )289)이 되는 거겠죠? 어휘의 의미를 살리셔야 해요.

어쨌든, 이 지문이 '기축 통화'에 대해 얘기한다는 점을 체크하면 되겠네요.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트리핀 교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 )290)을 체크합니다. 이때는 기축 통화가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미국 화폐요.

달러화에 '구조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트리핀 교수가 '브레턴우즈 체제'를 ( )291)했다고 하면 되겠네요. 어떤 점에 대해 문제를 삼는지 확인해봅시다.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 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경상 수지'의 정의가 '수식된 정의' 형태로 제시되네요. 이 정도는 '상식'으로 갖고 계셔야 합니다. '수입'이 많으면 당연히 '적자'이고 (돈을 많이 쓴 거니까), '수출'이 많으면 당연히 '흑자'입니다(돈을 많이 번 거니까).

그럼, 생각해봅시다. '경상 수지'의 정의는 '왜' 나온 걸까요? '경상 수지'는 결국 어떤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배경 지식일 뿐이겠죠?292)

그는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리핀 교수의 비판'입니다. 어떤 비판인지 천천히 살펴볼까요? 우선, 이 문장을 두 가지 정보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장을 먼저 나눠서 살펴봅시다.

<그는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 ..... ①

① : 경상 수지 적자 허용 X → 국제 유동성 공급 중단 → 경제 위축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 ②

② : 적자 상태 지속 → 과잉 공급 → 신뢰도 저하 & 고정 환율 제도 붕괴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포인트는! ①과 ②과 반대 관계를 가진다는 겁니다.

①은 적자 허용을 안 한다는 거고, ②는 적자를 허용한다는 거니까요. 또, ①은 적자 허용을 안 하기 위해서 '공급'을 중단하는 거고, ②는 과잉 '공급'을 허용하는 거니까요.

'적자'라는 워딩과 '공급'이라는 '반복되는 워딩'을 인식하고, ①과 ②를 반대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말이죠. 항상 하던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①번에서의 '경제 위축'이나, ②번에서의 '신뢰도 저하 & 고정 환율 제도 붕괴'를 모두 ( )293)라고 재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화'가 ( )294)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성립하니까요.

287) 정의  
 288) 기축  
 289) 기준  
 290) 주장  
 291) 비판  
 292) '경상 수지'를 알아야 '트리핀 교수의 비판'을 이해할 수 있나 봅니다. 항상 말하지만, 최근의 수능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따위의 문장 구조를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트리핀 교수의 비판을 이해하기 위해서 경상 수지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이런 문장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항상 어떤 '개념'이 나오면, 이 개념이 '왜' 나왔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293) 문제  
 294) 구조적 모순 | ①이나, ②이나 둘 다 문제니까 '모순'이라는 겁니다. 가능하죠?

2문단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1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뜻하죠? '지시어'는 꼭꼭 살려줍시다.
- 그리고 '국제 유동성'과 '신뢰도'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네! 앞 문단의 마지막에 나온 워딩입니다. 반복되는 워딩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해요.
- 마지막에 나왔듯이,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면, '신뢰도'가 떨어지고, 반대일 경우에는 반대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수단을 말하는데, ①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 '국제 유동성'의 ( )<sup>295</sup>가 나옵니다. 평가원은 이런 식으로 '개념'을 먼저 던져주고, 나중에 '정의'를 던져줌으로써 회수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동성'이 뭔지 모르더라도, '나중에 설명해주겠지~'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 그래서 '국제 유동성'이 뭐냐! 국제 유동성은 말 그대로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거죠.
- '금 본위 체제'도 말 그대로 '금'이 '본위'가 되는 '체제'인 거죠? '금'이 짱맨인 겁니다. 그러니까 각 국가의 돈의 가치가 '금'에 고정되는 거죠! 금이 기준이니까요.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 이미 '금'에 가치가 고정됐으니까 자기들끼리는 자동으로 고정되는 겁니다. 원래 예를 잘 들지 않는데, 이해를 위해 예시를 들어 볼게요.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아래와 같은 예시를 떠올렸어요. 숫자까지 완전 자세하게 떠올린 건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메커니즘'이 머릿속에 들어온 거죠. '기준'이 있다는 것에 대한 메커니즘이 머릿 속에 들어오면 좋겠네요.

A국 : 금 1개에 10개의 A국 화폐 필요

B국 : 금 1개에 100개의 B국 화폐 필요

- 이 경우, A국과 B국의 환율은 <A국 화폐 1개에 B국 화폐 ( )<sup>296</sup>개> 이런 식으로 되겠죠? A국 화폐가 금을 사는 데 돈이 덜 필요하니까, 가치가 10배 더 높다는 거고, 그러니까 B국 화폐를 A국 화폐 1개로 바꾸려면 10개가 필요한 거죠. '환율'의 정의는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죠?

295) 정의  
296) 10

이후 ①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 환 본위제'가 되었다.

- 이후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국제 유동성'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금'에 '달러화'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금 본위 체제'에서 '달러' 하나 추가된 거밖에 더 안 되네요. 그냥 '금'에서 '금 + 달러' 체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금 / 환 / 본위제'겠죠?
- 이렇게 개념의 ( )<sup>297</sup>가 있을 때는 '무엇이 변화했는지'를 따질 수 있어야 합니다.
- 그리고 한편, 여기 나오는 '브레턴우즈 체제'는 앞에서 나온 '트리핀 교수'가 비판한 체제입니다. '구조적 모순'이 있었던 체제라구요. 우리가 이 체제를 이해해야 '트리핀 교수의 비판'을 이해할 수 있겠죠?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를 이해하기 위해~'의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트리핀 교수의 비판'을 이해하기 위해, 그 전에 '브레턴우즈 체제'가 뭔지 먼저 이해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브레턴우즈 체제'를 이해할 겁니다.

1944년에 설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

- 브레턴우즈 체제를 이해해봅시다. 이 체제의 '의무'가 있습니다. <금 1 = 달러 35>라는 거죠. 이게 '금 태환 조항'입니다.
- 한편, '언제나'라는 단어를 보고 나서는 ( )<sup>298</sup>을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하구요.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바로 옆의 두 번째 문장에 있네요. 너무너무 당연한 서술입니다. 왜?? 기준이 '금'에서 '금 + 달러'가 된 거니까요. '금 본위 체제'에서의 메커니즘이 그대로 작동하는 거죠.
- 그리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해야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이랑 '달러'만 기준이니까, '달러'로만 '금'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환율은 경상 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 환율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변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인진 모르겠지만, 거의 변동이 안 된다는 거겠죠?? 현장에선 못하겠지만, 지문의 말을 빌리면 '고정 환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트리핀 딜레마에서 나온 것처럼요.

297) 변화  
298) 고정값

3문단

이에 따라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 이 문장에 서술된 내용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기축 통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 사이의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는 건, 앞에서 나왔던 '금'과 같은 '메커니즘'이죠??

□ '교차 환율'의 ( )299)도 체크해주셔야 하구요.

반복되는 메커니즘

- 1. 기축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 고정
- 2. 기축 통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의 자동 결정

□ 이 두 메커니즘이 '금 본위 체제'와 '금 환 본위제'에서 모두 작용했다는 게 머리에 남아야 하고, 동시에 완벽하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왜? '금'이나, '금 + 달러'나 똑같은 거니까요.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 두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300)

- 1.
- 2.

□ 이 두 정보를 보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으세요? 보자마자 떠올라야 하는 게 있습니다.301)

□ 우리가 읽고 있는 지문이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인지를 계속해서 떠올리려 노력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워딩'을 인지했다면, 이제 '생각'을 할 차례입니다. 이 문장이 말하는 게 어떤 상황인지요!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②

□ 위와 같은 상황인 걸 알 수 있겠죠? 즉, '브레튼우즈 체제'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금 준비량'은 왜 줄어든 걸까요? 분명히 우리가 읽은 문장에서 읽은 바에 따르면 ( )가 ( )302)되는 상황이 벌어져야 하는데, '금 준비량 급감'이라는 상황이 나오니까요. 이와 관련된 건, 3문단 해설이 끝난 후에 설명하도록 하고, 지금은 실전에서 해야 할 거에 대해 설명해봅시다.

□ 우선, 이 문장을 독해하고 나서, '금 준비량 급감'을 ( )303)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 )304)될지 기대해봐야겠죠?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 '금 준비량 급감'의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죠? 이걸 납득할 수 있습니다. 왜 '금 태환 의무'를 감당 못하는 걸까요?305)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 이제 '해결책'이 나옵니다. 해결책이 2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 ①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 ②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

□ 나아가, '환율'과 '통화 가치'가 '반비례'한다는 사실도 체크해주시구요.

300) 1. 경상 수지 적자 누적 / 2. 달러화의 과잉 공급  
 301) 트리핀 딜레마 | 적자 허용 → 달러화의 과잉 공급  
 302) 신뢰도 / 저하  
 303) 문제  
 304) 해결  
 305) 일단, '금 태환 의무'의 '정의'를 먼저 생각했어야 합니다. '금 1 = 달러 35'라는 정의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 의무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금 준비량'이 떨어지니까, 다른 나라들이 자기네가 갖고 있는 '달러'를 '금'으로 바꾸려고 할 때, 출금이 없는 거죠.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 여기에도 ①번과 ②번이 나오죠? 근데 두 해결책 모두 효과가 없습니다. ①번은 '미국'이 하지 않으려 하고, ②번은 '독일', '일본'이 하지 않으려 하니깐요.
- 현장에서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①번과 ②번 해결책이 모두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 여기서 말하는 '이 상황'은 ( )<sup>306)</sup>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의 수요가 증가했다고 해요. 왜 수요가 증가했을까요? 이 문장은 ①번일까요, ②번일까요?<sup>307)</sup> 이 정도는 실전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 여기에서는 '달러'를 '금'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①번일까요, ②번일까요?<sup>308)</sup>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금 태환 의무'를 '정지'합니다. 결국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된 거예요. '트리핀 딜레마'에서 지적했듯이, '구조적 모순'을 못 견뎌 거죠.
- 한편, '닉슨 쇼크'의 ( )<sup>309)</sup>를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 조금 더 자세히 1~3문단을 이해해봅시다. 다음 질문에 대해 스스로 먼저 생각해 본 후 해설을 읽어봅시다.

306) 해결책 ①과 ②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  
 307) ②번 | ②번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②번은 '여타국 통화의 평가 절상'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해결책 ②번을 거부하는 상황이 유지되지 못할 것 같다는 건, '평가 절상'이 불가피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308) ①번 | 앞에서 ②번이 나왔으니까, 이게 ①번이겠죠? 구조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구조적으로 봐도 그렇지만, ①번 해결책과 '문제 상황'을 엮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문장입니다. '금'은 부족한데, ①번이 시행되면 '달러의 가치 하락'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 하락이 이루어지기 전에 금을 사버리는 겁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살 수 있는 금의 양이 줄어들 거니까요!  
 309) 수식된 정의

1.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왜 '신뢰도'가 하락하는가?
2.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왜 '금 보유량'이 감소하는가?
3. 달러의 평가 절하는 어떻게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4. 여타국 통화의 평가 절상은 어떻게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해설

1.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수요와 공급'을 생각하면 됩니다. '공급'이 많을수록, 희귀성이 떨어지니까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기축 통화'인 '달러'의 지위를 생각했을 때, 기축 통화를 막 찍어내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우선 아까 해설을 떠올려봅시다. '달러화의 과잉 공급'은 '신뢰도 하락'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3문단의 첫 문장에 따르면 '과잉 공급' 때문에 '금 보유량 감소'라는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뭘? '신뢰도 하락'과 '금 보유량 감소'의 관계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sup>310)</sup>
  3. 달러를 평가 절하하면 '금 보유량 감소'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 태환 의무'를 통해 추론해봅시다. '금 태환 의무'의 정의와 '달러의 평가 절하'의 관계를 생각해볼까요?<sup>311)</sup>
  4. 3번을 푸는 논리와 똑같이 생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를 올리면, 그만큼 '달러'를 더 구입할 수 있고, 이 경우 미국의 '금'을 더 많이 사갈 수 있게 될 거니까요. 그러면 미국의 금 보유량이 더 줄어들겠죠? 그럼 문제데... 왜 해결 방안이라고 할까요? 이는 '환율과 경상 수지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일단, '문제'를 먼저 생각해봅시다. '금 보유량 감소'라는 원인은 '달러의 과잉 공급'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달러 회수'를 시행하면 됩니다.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면, 다른 나라가 금을 살 달러가 없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 다른 나라의 통화의 가치를 올린다는 것은, 환율을 내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는 지문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라는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상 수지'가 악화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1달러짜리 초콜릿이 있다고 해보죠. 환율은 1달러 당 1000원이라고 합시다. 이때, 환율이 2000원으로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초콜릿 하나의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른 꼴과 같습니다. 그러면 '수입'을 안 하겠죠? 미국은 '수출'을 못 할 거구요. '주요국'인 독일과 일본이 같은 상황인 겁니다. '평가 절상'을 시키면 '수출'이 안 될 거고, 상대적으로 주요국 중 하나인 미국의 '수출'이 늘겠죠? 그럼 수출을 한 만큼 '달러'가 회수될 테구요. 달러가 회수되면 '달러의 과잉 공급'이라는 문제의 원인이 사라지니까 '해결'되는 거네요!
- 310) 세계의 여러 나라가 '달러의 신뢰도'가 하락하니까 '금'을 갖고 있는 달러로 금을 마구마구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진 금의 개수는 줄어드는 거죠.
  - 311)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면, '금 1 온스'를 구매하는데, 더 많은 양의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평가 절하를 시행하면, 미국이 회수할 수 있는 달러의 양이 늘어나기도 하고(금 준비량 저하의 원인이 '달러의 과잉 공급'이었으니, 회수를 하면 해결이 되겠죠?), 더 많은 달러를 써야 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금을 덜 사겠죠? 그러면 해결이 될 겁니다.

4문단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그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의 지위가 살아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왜???'라는 생각이 들어야겠죠?
- 그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듭니다. 이게 뭔가 살펴봅시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 어떠한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긴다.

- '기축 통화가 없는 경우'가 상정되네요. 이 경우, 아주 ( )<sup>312)</sup>임을 알 수 있네요. 무역이든 뭐든 하려면 서로 환율을 다 계산해야 하니까요. '기준'이 있는 게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기축 통화'는 ( )<sup>313)</sup>겠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건, '붕괴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기축 통화 역할을 하는 이유'이니까요.
- 큰 '규모'의 사용이 더 효율적인 걸 '규모의 경제'라고 하나 봅니다. 자세한 정의는 나오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상황 서술을 통해 추론 가능하게 해 줬네요.

독해 포인트 정리

1. ㉠(금) → ㉡(금 + 달러) → 달러 붕괴 BUT 기축 통화 → ㉢(기축 통화가 없는 경우), 지문을 다 읽고 나서 이렇게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2. '브레턴우즈 체제의 문제'가 '금 준비량 급감'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한 해결책이 '평가 절하'와 '평가 절상' 두 가지로 나뉘어 제시되었다는 사실이 독해됐어야 합니다. 완벽한 '이해'는 아니더라도, 정보의 '처리'는 가능했어야 해요.

MEMO

312) 비효율적  
313) 달러

M E M O

1. 밑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②

□ 화제와 무관하거나, 화제와 반대인 걸 서술해놓은 선지를 고르면 됩니다.

①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가 기축 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 '규모의 경제' 때문이죠?

②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의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 트리핀은 어떤 전망을 했는가?

□ 붕괴 이후의 '세계 경제 위축'은 이 지문의 화제와 아예 무관합니다.

③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미국 중앙은행은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했는가?

□ '금 태환 의무'죠?

④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인가?

□ '금 + 달러'였습니다.

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달러화 신뢰도 하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 달러화의 과잉 공급! 유동성 공급이 과해서 '신뢰도'가 하락한 거였죠.

2. 밑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

①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

□ 현장 : '닉슨 쇼크' 전에는 '미국의 규정' 때문에 달러의 평가 절하가 불가능했었죠? 그러니까 '닉슨 쇼크' 후에는 평가 절하가 가능할 겁니다. 현장에서는 이 정도로만 풀면 돼요.

□ 현실적으로 그렇게 풀어야 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선지를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닉슨 쇼크 전에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가 있었던 건이죠. 물론,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화의 평가 절하>라고 '수식된 정의'로 본다면, 판단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평가원의 '선지의 의도' 상 '고평가 문제'를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공부에 있어서 필연적입니다. 생각해보고 각주의 해설을 봅시다.<sup>314)</sup>

②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 이는 지문을 독해하며 미리 생각했던 정보입니다. 해결책 ②번이었죠?

③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는 트리핀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 '갑자기 금 생산량 증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OOO OO O!! 생각해봐야죠?<sup>315)</sup>

□ 그럼 우리는 선지에 등장한 개념 간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금의 생산량 증가'와 '트리핀 딜레마 상황' 간의 관계를 생각해야겠네요. '트리핀 딜레마'가 곧 '문제점'이니, 어떤 게 '문제'인지 생각하는 게 맞는 순서일 겁니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문제'가 뭐였죠?<sup>316)</sup>

□ 이제 이 '문제'와 '금 생산량 증가'를 엮어보세요. 제가 해설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해결되죠? 어려우면 항상 '선지가 묻는 것'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④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공급량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한다.

□ 이게 '구조적 모순'이었죠? 공급을 늘려도 문제, 줄여도 문제였으니까요.

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면,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감소한다.

□ 너무 당연하죠? 가치가 올라가면, 금을 많이 살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건 실전적 해설이고, 더 '정확'하게 이 선지를 풀어봅시다. 과연 '마르크화'를 통해 바로 '금'을 살 수 있을까요?<sup>317)</sup>

314) 달러화의 과잉 공급은 '가치 하락'을 불러옵니다. '가치 하락'이 곧 '신뢰도 하락'이구요. 그런데,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금 태환 의무'에 의해 '금 1 온스 = 35달러'로 고정됩니다. 그러니까 '고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315) 선지가 묻는 것

316) 금 준비량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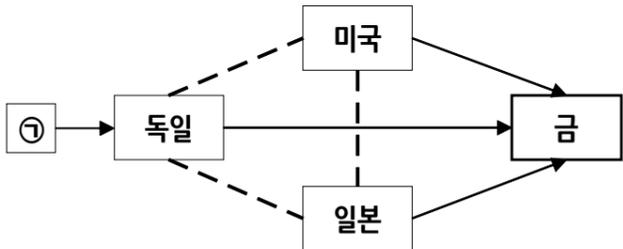
317) '금'은 '달러'로만 살 수 있죠? 따라서 '마르크화'로 '달러'를 산 후, 그 달러로 '금'을 사야 합니다. 그러니, 더 정확하게 해설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르크화'의 가치가 오름 → '달러'를 많이 삼 → '금'을 많이 살 수 있게 됨.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3.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를 보고 ‘미국’, ‘일본’, ‘독일’이 떠오르시죠? 한 번 풀어봅시다.

① ㉠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는 금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보다 하나 적다.



□ ㉠은 기축 통화가 ‘금’이죠? ‘금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는 3입니다.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역시 3이죠? 위에 ‘점선’과 ‘화살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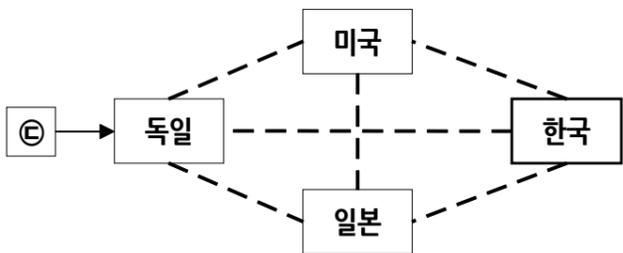
② ㉣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 통화라면 ㉣에 비해 교차 환율의 가짓수는 적어진다.

□ ㉣ 붕괴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가 기축 통화라면, ‘변화’된 게 없습니다. ‘환율’의 입장에서 그냥 ㉣이랑 똑같은 거예요. 선지를 읽고 나서 ‘교차 환율’의 정의를 찾거나, 떠올려야겠죠?

□ ‘미국을 제외한 국가 간의 환율’인 ‘교차 환율’의 수는 ‘미국’이 ‘기축 통화’로 계속 고정되어 있으니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③ ㉢에서 국가 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환율의 전체 가짓수도 하나씩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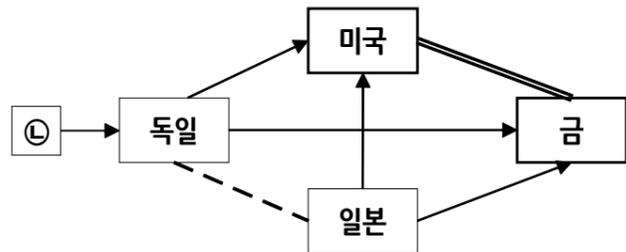
□ ㉢은 ‘기축 통화’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국가 수가 하나 증가하면 ( )<sup>318)</sup>만큼 늘어납니다. 왜 그런지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 위 그림은 ㉢에서 국가 수가 증가한 경우입니다.

④ ㉠에서 ㉣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가 많아진다.

□ ㉠과 ㉣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가 있죠?<sup>319)</sup> 이 관계를 생각해보면 선지가 쉽게 풀립니다. ‘기준’이 많을수록,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개수는 적어집니다. ‘기축 통화’에 가치가 고정되고, 기축 통화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끼리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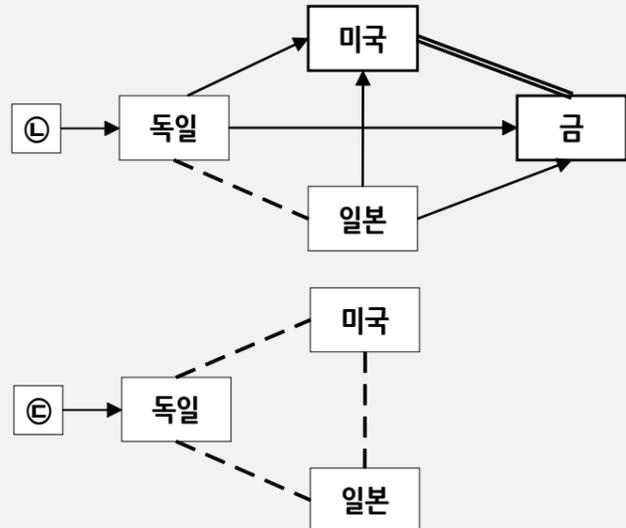


⑤ ㉣에서 교차 환율의 가짓수는 ㉢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짓수보다 적다.

□ ‘교차 환율’의 정의부터 체크해야겠죠? 선지를 풀 때는 ‘선지가 묻는 것’을— 생각하고, ‘정의’를 바탕으로 풀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 어쨌든, ‘교차 환율’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 간의 환율’입니다. 이 선지도 앞선 문제와 같이 ‘답’을 내기는 쉽습니다. ㉣에서 ㉢으로 바뀌면, ‘기축 통화’가 없으니 ‘교차 환율’의 수는 그대로거나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 이 선지의 경우는 ‘그대로’겠죠? ‘독일 - 일본’ 간의 환율은 하나만 ‘교차 환율’이니까요.



318) 국가 수 증가 전의 국가 수 | 기축 통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국가가 하나 추가되면, 기존에 존재하던 국가들과 새로 추가된 국가가 연결돼야 하니까 <국가 수 증가 전의 국가 수>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319) 기축 통화가 ‘금’ 하나에서 ‘금 + 달러’가 됩니다. 즉, ‘기축 통화’의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4.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④

— <보 기> —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의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기축 통화국인 A국의 금리는 인상되었고 통화 공급은 감소했다.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A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주도하여, 서로 교역을 하며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 국가 A, B, C는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을 합의했다. 이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50%, 30% 하락했다.

□ <보기>는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부터 정리해봅시다.

1. A국의 금리 인상(통화 공급 감소는 ①과 ②의 공통점이 아니므로, <보기>의 의도는 '금리 인상'일 겁니다.)

- ①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 ② 소득세 감면과 군비 등대가 이루어지면서

2. 이로 인한 상황(= )<sup>320)</sup>을 해소하기 위해

- ① A - B 환율 : 50% ↓
- ② A - C 환율 : 30% ↓

□ 우선,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문제의 선지들이 아주아주 '공부'에 좋은 선지라는 점을 밝히고 갑시다. 개인적으로, '시험'에 출제하기 알맞은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부'에 아주 좋은 선지들이므로 제대로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 어려운 선지를 대할 때는 딱 3가지를 기억합시다.

어려운 선지를 대하는 태도

- 1. 선지가 묻는 것
- 2. 선지에 등장한 개념 간의 관계
- 3. 정의를 바탕으로

□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①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겠군.

선지가 묻는 것 :

- 1.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 → 신뢰도 ↓
- 2. 외국 자본 대량 유입 → 신뢰도 ↓

해설 :

- 1. '신뢰도'와 '통화 공급' 간의 관계를 생각합시다. '신뢰도 하락'은 '과잉 공급' 때문에 생기죠? 따라서 '통화 공급'이 '감소'했는데, '신뢰도'가 '하락'한다고 하는 건 틀렸네요.
- 2.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금리 인상 & 통화 공급 감소'를 하고, 이로 인해 '신뢰도 하락'이 일어나나요? 다시 말해, '외국 자본의 유입'이 '원인'인가요? <보기>에 따르면 '금리 인상 & 통화 공급 감소' 때문에 '외국 자본 대량 유입'이 발생했습니다. 즉,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서 틀린 선지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틀린 선지네요.

②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여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겠군.

선지가 묻는 것 :

- 1. A - B 환율 하락 → 국제 유동성 공급 증가<sup>☆어려운 선지 판단☆</sup>
- 2. 1번으로 인해 A국 통화 가치 상승

해설 :

- 1. 'A - B 환율의 하락'과 '국제 유동성 공급'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키는 이유를 '지문'을 통해 생각해봅시다. '여타국 통화의 환율 하락' = ( )<sup>321)</sup>입니다. 이걸 왜 했죠? '달러화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금 부족'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즉, '과잉 공급'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타국 통화의 환율 하락'을 했던 것이므로, <선지가 묻는 것 1번>의 논리는 틀렸습니다. '환율 하락'은 '유동성 공급 감소'를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 2-1. <A국 환율 상승(B국의 환율이 올랐으니까) → 통화 가치 상승>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환율'과 '통화 가치'는 '반비례' 관계였습니다. 이거는 지문에서도 설명했죠? 그러니까 A국의 환율이 상승하면, 통화 가치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락할 겁니다. 틀렸네요!
- 2-2. <국제 유동성 공급 증가 → A국 통화 가치 상승>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과잉 공급'은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즉, '가치'를 하락시키는 거죠. 따라서 이거도 틀렸습니다. 어떻게 봐도 다 틀린 선지네요.

320) 문제

321) 여타국 통화의 통화 가치 상승

③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모두 하락했겠군.

선지가 묻는 것:

- 1. A - B 환율 하락
- 2. B - C 환율 하락

해설:

- 1. 이건 <보기>만 읽어도 알겠죠?
- 2. 이 선지는 B와 C 간의 환율에 대해 묻고 있네요. 그럼 당연하게도 B와 C를 연결해주는 개념을 찾아야 합니다. 둘 간의 '관계'를 따져야 하니깐요. 그럼 <보기>의 2번 정보가 떠오르게 됩니다. A - B 환율이 50% 하락했고, A - C 환율이 30% 하락했으니, B와 C의 관계를 따질 수 있습니다. B의 환율이 C보다 더 많이 하락했으므로, 상대적으로 B에 대한 C의 환율은 올랐다고 할 수 있겠죠? 즉, B - C 환율은 '하락'이 아니라 '상승'입니다.

④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하여,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 수지는 개선되었겠군.

선지가 묻는 것:

- 1.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 하락
- 2. 환율 하락 → B - C 경상 수지 개선 ☆어려운 선지 판단☆

해설:

- 1. 이건 <보기>만 읽어도 알겠죠?
- 2. 이 부분이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부터 생각해봅시다.
  - ① 개념 간의 관계<sup>322)</sup>:
  - ② 지문에서 두 개념의 관계를 찾고, 논리를 정리하세요. <sup>323)</sup>

□ 이제 제대로 해설을 해봅시다.

② - 1. '통화 가치'와 '경상 수지'의 관계:

지문에서는 '독일'과 '일본'이 무역 '흑자' 상태였기 때문에 '평가 절상'을 하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즉, '흑자'일 때는 '평가 절상'보다 '평가 절하'를 원한다는 거죠. 이제 '통화 가치'와 '환율'의 관계를 찾아야겠죠? 그래야 선지가 묻는 것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② - 2. '통화 가치'와 '환율'의 관계:

지문의 워딩에 따르면, '환율을 하락시켜 여타국 통화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평가 절상'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둘은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우리는 '환율'과 '경상 수지'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322) 환율과 경상 수지의 관계를 생각해야겠네요.  
 323) 저는 '경상 수지'에 관련된 워딩을 찾아봤습니다. 그럼 3문단에 '흑자'가 보이죠? 그리고 '흑자'와 '평가 절상'의 관계가 보이구요.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거는 '평가 절상'과 '환율'의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그래야 선지를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나씩 해봅시다. 그 전에!! 미리 여러분이 관계를 정의 내리고, 선지를 해결하고 해설을 독해하세요.

결론:

'경상 수지 개선' 즉, '흑자'로 만드려면 '평가 절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치'와 '환율'은 '반비례'하므로 '환율'은 올라야 합니다. 따라서 '경상 수지 개선'을 위해서 '환율 상승'이 필요한 거죠.

선지에 등장한 A국의 환율과 관련된 정보를 보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 하락>이라고 했습니다. B국과 C국의 환율이 떨어졌으므로, A국 환율은 오른 거죠.

A국의 '환율'은 올랐고, 우리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이는 곧 '경상 수지 개선'이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⑤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로 A국의 경상 수지가 악화되며, 그 완화 방안 중 하나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겠군.

선지가 묻는 것:

- 1.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 → A국 경상 수지 악화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선지☆
- 2. 경상 수지 악화 완화 방안 = A - B 환율 상승

해설:

- 1. 이 선지는 정말 과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문에는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 = ( )<sup>324)</sup>'과 엮인 정보가 단 하나도 없거든요. 이 선지를 '지문'으로만 풀어내려면 '역추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는 제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한 번 해봅시다.

<보기>에 따르면,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로 인해 '어떤 상황'이 발생했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 환율 하락'을 시행합니다. 근데 우리가 ④번 선지에서 논리를 이끌어냈듯이, '환율'과 '경상 수지'는 '비례'합니다. 근데,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켰다는 것은, A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켰다는 말과 같습니다. 즉, A국 통화의 '경상 수지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제 1번이 묻는 것을 판단해봅시다.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 '해결책'으로 '경상 수지 개선'을 했습니다. '경상 수지 개선'이 '해결'이라는 것은, 역으로 추론했을 때, '어떤 문제'는 '경상 수지 악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가 묻는 것 1번'은 맞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어려운 선지입니다. 그래도 이 '논리'는 복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고력'을 위해서요!

- 2. 이건 ④번 선지가 묻는 것 2번에서 우리가 판단했던 논리를 활용해야 합니다. '경상 수지'와 '환율'은 '비례'하는 관계였죠? 즉, A국의 경상 수지를 개선하려면 A국 환율을 상승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선지에서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킨다고 합니다.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A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킨다는 것이므로, '경상 수지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324) 금리 인상



1

## 1문단 본문

홀 효과의 개념과  
그에 관한 과학적 원리

2

## 2문단 본문

정수 양자 홀 효과의  
발견과 그 개념

EBS  
EBS  
EBS

38p

!

TT

3

## 3문단 본문

분수 양자 홀 효과의  
발견과 그 개념

4

## 4문단 본문

분수 양자 홀 효과가  
나타나는 과학적 원리



# 양자 홀 효과 키워드

번호	키워드	설명
1	에드윈 홀과 홀 효과	<p>▷ 홀 효과(Hall Effect)는 에드윈 홀에 의해 1879년에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에드윈 홀이 홀 효과를 발견할 당시 그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 다니는 24살의 대학원생이었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과학자는 아니지만, 그가 현대 물리학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산업에 끼친 영향은 놀라울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다.</p> <p>▷ 홀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석에 의해 힘을 받는 것을 알고서 도선 전체가 힘을 받는 것인지 혹은 도선 내의 전자만이 힘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호기심을 품었다. 후자가 맞을 거란 생각에 그는, '만약 고정된 도선 내의 전류 자신이 자석에 끌린다면, 전류는 도선의 한쪽으로 흘러나와야 하겠기에 도선의 전기저항이 증가할 것'이란 가정에 따라 실험을 행하였다. 그의 실험은 결국 자기저항을 찾는 것으로 당시의 실험 정밀도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가 작아서 실패하였다. 그는 여기에 낙담하지 않고 '만약 자석이 전류를 당기더라도 도선 바깥으로 고집어낼 수 없는 정도라면 도선 내에 한 쪽 벽으로 전기적인 응력(외부에서 가하는 힘 즉, 외력(外力)이 작용하면 외력이 가해지는 물질의 내부에는 이에 저항하는 힘이 생기는데 이를 응력이라고 한다)이 생겨날 것이고 이 응력은 전압(전위차)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여 전위차를 측정해보게 되었다. 이것이 홀 전압이고 이로써 홀 효과가 발견되었다. 제시문을 통해 홀 효과의 원리까지 이해하고 가져가는 것은 무리일 수 있으나, 홀 효과에서 전류와 자기장이 수직인 방향으로 형성되었을 때 전자나 정공이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는지에 대한 관계는 암기해두자. 관계가 명확하여 출제하기에 좋은 개념이기 때문이다.</p> <p>▷ 이 홀 효과는 1900년 초 금속의 전자 특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이후 반도체의 발견에 따라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되었다. 홀 효과를 몰랐었다면 지금과 같은 전자산업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최근에는 매우 낮은 온도, 순수한 재료 및 높은 자기장 아래서 새로운 양자 홀 효과가 발견되어 그 영역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 양자 홀 효과에 대해서는 제시된 EBS 지문을 통해 잘 학습해두자. 제시된 내용 이상으로는 출제되기 어려울 것이다.</p>

## 필수 어휘

①	전위	전기장 안의 한 점에 어떤 표준점으로부터 단위 전기량을 옮기는 데 필요한 두 점 사이의 전압의 차. 곧 전하가 갖는 위치 에너지를 이른다.
②	전위차	두 점 사이에서 단위 양전하를 어떤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일. 이것이 양(+)일 때, 이동한 점의 전위는 이동하기 전의 전위보다 높다고 한다.
③	정공	절연체나 반도체의 원자 간을 결합하고 있는 전자가 밖에서 에너지를 받아 보다 높은 상태로 이동하면서 그 뒤에 남은 결합이 빠져나간 구멍. 마치 양의 전하를 가진 자유 입자와 같이 동작한다.
④	로런츠 힘	전자기장 안에서 전하가 받는 힘.
⑤	저항	도체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작용. 전압을 전류로 나눈 값으로 나타낸다. 단위는 옴( $\Omega$ ).
⑥	양자 우물 구조	퍼텐셜 에너지가 주변보다 작은 영역이 존재하는 양자 역학적 구조.
⑦	양자화	고전 역학에서는 모든 물리량이 연속적인 값을 갖는 반면에, 양자 역학에서는 물리량이 불연속적인 정수처럼 띄엄띄엄한 값만을 갖는데, 이를 양자화라 부름.
⑧	절대 영도	열역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저의 온도. 0K으로 나타내며, 섭씨온도 눈금에서 - 273.15°C에 해당함.
⑨	전도띠	에너지띠 가운데 전자가 비어 있거나, 전자가 아랫부분에만 차 있는 에너지의 띠. 결정 내 전자의 양자 상태를 나타내는 에너지 준위의 구조를 에너지띠라고 부른다.



## 전자의 전하량 측정 [연계지문]

### ▷ 수록 이유 ◁

이 지문에서는 전자의 전하량의 존재를 둘러싼 논쟁에서 전하량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밀리컨이 고안해 낸 기름방울 실험을 설명하고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전자의 전하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는 밀리컨 이전에도 있었지만 보완하거나 극복해야 할 점들이 많았고 밀리컨은 이를 개선한 기름방울 실험을 통해 기본 전하량을 직접 측정하였다. 해당 제시문은 EBS 지문과의 직접적인 연계 지문은 아니지만, 5문단에서 제시되는 전하량 측정 과정에서 EBS 지문과 비슷한 요소들에 대한 관계 파악을 연습해볼 수 있는 지문이다.

1900년대 초 물리학계에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최소 전하량인 전자의 전하량 존재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전자가 띠고 있는 전기의 양인 전자의 전하량은 기본 전하량이라고도 하는데, 이 논쟁에 참가했던 두 논객 중 로버트 밀리컨(Robert A. Millikan)은 이를 측정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으나, 다른 한 사람 펠릭스 에렌하프트(Felix Ehrenhaft)는 전자의 전하량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학문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전자의 전하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는 밀리컨 이전에도 있었는데, 기본 전하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험 방법을 구안하는 것이 중요했다. 윌슨은 이온화된 안개상자에 생성되는 구름이 중력의 영향으로 하강하는 비율을 측정한 뒤, 이와 유사한 구름에 중력의 방향과 반대인 전기장을 가해서 구름 방울의 하강 속도 비율을 비교하는 간접적 측정으로 기본 전하량의 값을 얻었다. 그런데 윌슨이 측정한 전하량값은 편차가 상당히 심했고, 밀리컨은 이것이 X-선관에 의한 이온화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밀리컨은 X-선 대신 라듐을 이온화 장치로 사용하는 등 실험 방법을 계속 개선해 나갔다.

우선 그는 실험 중 물방울이 기화하는 문제를 극복할 방법을 고민하였다. 또한 그동안의 실험 장치에서는 중력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과 전기장을 가했을 때 떨어지는 물방울의 질량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었는데,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이 점도 보완해야 할 과제였다. 그는 실험 조건을 다양화하기 위해 물 이외에 알코올을 실험에 활용하기도 했다. 물과 알코올 방울 하강 실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강 속도, 반경, 밀도, 유체의 점성도와 관련된 스토크스 법칙\*의 유효성을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공기의 점성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일이었다. 또한 전기장 내에서 단일하게 대전\*된 방울들을 만들어 내는 것도 실험의 정확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다.

결국 밀리컨은 물방울과 알코올 방울 실험을 통해 전자의 전하량 값을 얻었는데, 자신이 얻은 값이 다른 사람들이 얻은 값과 오차 범위 내에서 일치하는 것에 고무되어 기본 전하량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밀리컨은 전자의 전하량의 존재를 부정한 에렌하프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계속 개선해 나가 ①기름방울에 의한 실험을 고안했는데 이것은 기본 전하량을 측정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되었다. 기름은 휘발성이 낮아 기름방울이 오르내리는 것을 오랜 시간 동안 측정할 수 있었으며, 이 실험은 기름방울에 작용하는 여러 종류의 힘인 전기력, 중력, 부력, 공기의 저항력 등과의 관계로부터 값을 구하는 직접적인 측정이었다.

밀리컨은 전기장 속에 놓인 두 극판 사이에 미세한 기름방울을 뿌린 후, 그 움직임을 관찰하였다. 기름방울은 분무기를 통과하면서 단일한 전하를 띠게 되고, 수평의 두 극판이 만드는 전기장(E)에서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고, 위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다. 이때 극판의 전압을 조절하여 전기력이 중력과 평형을 이뤄 기름방울들이 움직임 없이 떠다니게 하였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qE=Mg'이다. 여기서 q가 구하고자 하는 기름방울의 전하량이고 전기장(E)의 크기와

중력 가속도(g)는 알고 있는 값이다. 따라서 밀리컨은 기름방울의 질량(M)을 구하기 위하여 전기장을 끄고 낙하하는 기름방울의 종단 속도\*를 측정하여 기름방울의 반경을 구하고, 이를 이용해 질량(M)을 알 수 있으므로 q를 구할 수 있었다. 그는 공기의 점성도를 정확하게 대입하고 스토크스의 법칙을 교정하여 많은 오차 요소를 제거해 나간 끝에 마침내 기본 전하량값을 발표하였고, 이에 의해 물리학의 기본이 되는 여러 기초 상수들도 새롭게 계산될 수 있었다.

\*스토크스 법칙(Stokes' law): 구형 입자가 유체 속을 매우 천천히 움직일 때의 힘

에 대해 기술한 법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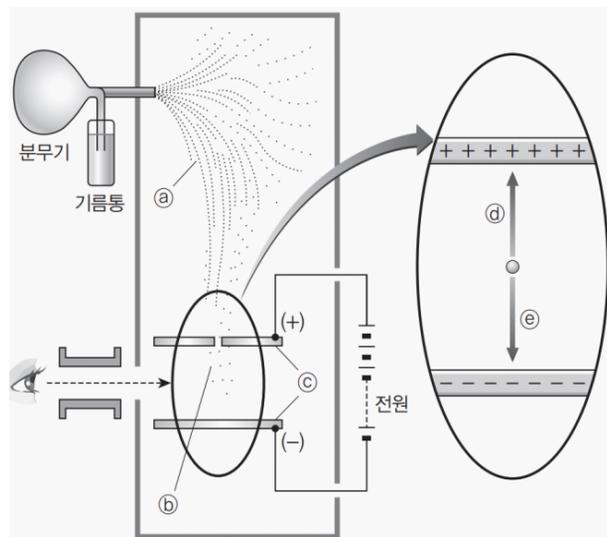
\*대전: 어떤 물체가 전기를 띠. 또는 그렇게 함.

\*종단 속도: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속도의 증가에 따라 저항력이 커져서 결국 일

정한 속도를 가지게 되는 것.

### 확 인 문 제

그림은 ㉠을 나타낸 것이다. ㉠~㉡를 바탕으로 ㉠을 설명한 내용으로 다음 퀴즈에 답하시오.



①	기름은 휘발성이 낮기 때문에 기름방울 ㉠과 ㉡의 질량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input type="radio"/> O   <input type="radio"/> X
②	기름방울 ㉠은 ㉡와 달리 ㉡의 영향은 받지만 ㉠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하를 띠지 않는다.	<input type="radio"/> O   <input type="radio"/> X
③	㉡의 전하량을 알기 위해서 ㉠을 끄고 ㉡의 종단 속도를 측정하여 ㉡의 질량을 구한다.	<input type="radio"/> O   <input type="radio"/> X
④	㉡의 종단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공기의 점성도와 관련된 스토크스의 법칙을 교정하여 적용하였다.	<input type="radio"/> O   <input type="radio"/> X
⑤	㉠의 전압을 조절하여 ㉠과 ㉡가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의 전하량을 측정한다.	<input type="radio"/> O   <input type="radio"/> X

### MEMO



## 태양 전지의 원리와 구성 [연계지문]

### ▷ 수록 이유 ◁

제시된 지문은 EBS 지문에서 제시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이용한 태양 전지에 대해 읽어볼 수 있는 지문이다. 제시문에서는 태양 전지의 원리와 특징을 제시하면서 태양 전지가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태양 전지는 진성 반도체를 불안정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로 만든 다음, 이 두 개의 반도체를 결합한다. 여기에 태양을 비추면 전자와 정공이 생성되면서 활발히 운동하게 되는데 이때 전자와 정공을 한쪽 방향으로 모이게 하여 전자가 전도체를 타고 흐르면서 전기 에너지를 태양 전지 밖으로 방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양 전지는 반드시 태양이 있어야 전기를 생성할 수 있으며 여러 취약점으로 인해 효율이 떨어진다. 하지만 소음과 공해가 없는 청정한 태양광이 비추는 곳이면 어느 지역에서나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태양 전지는 태양 광선이 가진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반도체 장치로 개발 초기에는 매우 고가여서 인공위성용 전원으로만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가격이 많이 저렴해져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다른 에너지에 비해 매력이 있는 것은 태양광을 아무 대가 없이 무료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고 소음이나 공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태양광이 비추는 곳이면 어느 지역이나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양 전지는 빛을 전기로 변환하는 패널인데 그 원리를 간단히 살펴보자. 태양 전지는 반도체가 빛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입자가 발생하고 그 입자가 태양 전지 속에서 운동함으로써 전기가 발생하게 된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의 중심에 원자핵이 존재하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다. 이때 원자핵은 1개이지만 전자의 수는 물질에 따라 다르다. 태양 전지의 대표적인 재료인 실리콘은 전자의 수가 14개이고, 바깥쪽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최외각 전자라고 한다.—가 4개이다. 이러한 실리콘 원자들끼리 결합되어 있는 진성 반도체는 최외각 전자들이 안정적으로 결합하고 있으므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 이 진성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하여 두 가지 성질의 반도체를 만든다. 진성 반도체의 실리콘 원자 1개를 인 원자로 대체한다. 인 원자는 최외각 전자가 5개이므로 주위의 실리콘 원자들과 공유 결합\*하면 1개의 전자가 남게 된다. 이 전자는 실리콘 안에서 자리 잡을 장소가 없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이를 자유 전자라고 한다. 이러한 자유 전자를 가진 실리콘을 N형 반도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진성 반도체의 실리콘 원자 1개를 붕소 원자로 대체한다. 붕소 원자는 최외각 전자가 3개이므로 주위의 실리콘 원자들과 공유 결합하면 하나가 공유 결합을 못하고 빈 자리가 생기게 된다. 이를 정공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공을 가진 실리콘을 P형 반도체라 한다.

태양 전지는 기본적으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결합한 P-N 접합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태양 전지 내부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외부로 끌어내는 양단의 전극과 빛이 태양 전지 내부로 흡수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 N형 반도체 쪽에 붙이는 반사 방지막으로 구성된다. 태양 전지에 빛이 들어오면 광전 효과\*로 발생한 입자—전자와 정공—가 생기면서 반도체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상태가 된다. 이때 P-N 접합부에 생기는 전기장에 의해 전자는 N형 반도체 쪽으로, 정공은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한다. 양단의 전극에 전선을 연결하면 N형 쪽의 전자가 전선을 통해 P형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것이 빛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의 원리이다. 빛이 들어오는 동안 전류는 계속해서 흐르지만 빛이 사라지면 전류도 흐르지 않는다.

태양 전지의 성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광전 변환 효율이다. 광전 변환 효율은 빛의 에너지의 몇 퍼센트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광전 변환 효율은 태양 전지에 들어가는 태양광 에너지의 양을 출력되는 전기 에너지의 양으

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얻은 수치를 말한다. 광전 변환 효율이 100%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태양 전지 셀의 표면에서 빛이 일부 반사되거나 태양 전지 속에 들어온 빛 중에서도 긴 파장의 빛은 입자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 입자가 발생하더라도 전극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전극 부분에 저항이 생겨 전기가 열로 변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태양 전지의 효율과 재료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발과 연구가 진행 중이다. 태양 전지의 효율을 높이기만 한다면 태양 에너지는 석유나 원자력 에너지 등을 밀어내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가는 에너지가 될 것이다.

\*공유 결합\_ 한 쌍 이상의 전자를 공유하여 이루어지는 화학 결합.

\*광전 효과\_ 물질의 표면에 빛을 비추면 자유 전자가 튀어 나오는 현상.

### 확 인 문 제

①	태양 전지의 가격은 과거에 비해 많이 비싸졌다.	O   X
②	태양 전지는 설치할 수 없는 장소가 많은 것이 단점이다.	O   X
③	진성 반도체는 전류를 빠르게 전도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O   X
④	원자가 가진 원자핵은 1개이지만 전자의 수는 물질에 따라 다르다.	O   X
⑤	태양 전지는 들어오는 태양광 에너지보다 나가는 전기 에너지가 더 크다.	O   X
⑥	태양 전지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태양 전지의 광전 변환 효율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연구해야한다.	O   X
⑦	긴 파장의 태양 빛으로도 전자와 정공을 발생시키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 태양 전지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O   X
⑧	태양 전지 내에서 발생한 입자가 최대한 많이 전극에 도달하는 기술을 개발하면 태양 전지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O   X

### MEMO



## O, X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 "전자의 전하량 측정" 확인문제 정답

MEMO

#### 01. O

▶ 3문단을 보면, 밀리컨은 물방울이 기화하는 문제를 극복할 방법을 고민하였는데 기존의 실험 장치에서 중력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과 전기장을 가했을 때 떨어지는 물방울의 질량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지만 이를 보완할 과제로 보았다. 그래서 밀리컨은 4문단에서 휘발성이 낮은 기름방울에 의한 실험을 고안하였다. 따라서 중력장에서 떨어지는 기름방울 ㉔와 전기장을 가했을 때 떨어지는 기름방울 ㉕의 질량을 동일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02. X

▶ 5문단에서 기름방울은 분무기를 통과하면서 전하를 띠게 되고 수평의 두 극판이 만드는 전기장에서 위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㉔와 ㉕는 모두 전하를 띠며 ㉕는 전기력을 받는다. 따라서 ㉔가 전하를 띠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3. O

▶ 5문단의 'qE=Mg'를 보면, 전기장(E)의 크기와 중력 가속도(g)는 알고 있는 값이고, 구하고자 하는 기름방울의 전하량(q)은 기름방울의 질량(M)을 알면 가능하다. 밀리컨은 전기장을 끄고 낙하하는 기름방울의 종단 속도를 측정하여 기름방울의 반경을 구하고, 이를 이용해 질량(M)을 알 수 있으므로 q를 구할 수 있었다. 따라서 ㉕의 전하량을 알기 위해서 전극판(㉑)을 끄고 ㉕의 종단 속도를 측정하여 ㉕의 질량을 구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04. O

▶ 3문단에서 밀리컨은 하강 실험과 관련하여 하강 속도, 반경, 밀도, 유체의 점성도와 관련된 스토크스 법칙의 유효성 문제를 고민하였고, 5문단에서 기름방울 실험 시, 공기의 점성도를 정확하게 대입하고 스토크스의 법칙을 교정하여 많은 오차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기본 전하량을 구했다. 따라서 밀리컨이 기름방울 실험에서 ㉕의 종단 속도를 구하기 위해 공기의 점성도와 관련된 스토크스의 법칙을 교정하여 적용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05. O

▶ 5문단을 보면, 기름방울(㉕)은 수평의 두 극판(㉑)이 만드는 전기장에서 아래 방향으로 중력(㉑)을 받고, 위 방향으로 전기력(㉔)을 받는다. 이때 극판의 전압을 조절하여 전기력이 중력과 평형을 이뤄 기름방울들이 움직임 없이 떠다니게 하여 'qE=Mg' 상태가 되면 ㉕의 전하량(q)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태양 전지의 원리와 구성" 확인문제 정답

01. X

▶ 1문단에서 태양 전지의 가격이 현재는 많이 저렴해져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02. X

▶ 1문단에서 태양 전지의 장점은 태양광이 비추는 곳이면 어느 지역이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03. X

▶ 2문단에서 진성 반도체는 최외각 전자들이 안정적으로 결합하고 있으므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04. O

▶ 2문단에서 원자는 원자핵은 1개이지만 전자의 수는 물질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05. X

▶ 4문단에서 태양 전지의 광전 변환 효율이 100%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으므로 들어오는 태양광 에너지보다 나가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6. X

▶ 광전 변환 효율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태양 전지의 효율을 정확하게 알게 해 줄 수는 있지만 태양 전지의 성능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07. O

▶ 태양 전지 속에 들어온 빛 중에서도 긴 파장의 빛은 입자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으므로 긴 파장의 빛으로 전자와 정공을 발생시키는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태양 전지의 성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08. O

▶ 전자나 정공이 생기더라도 전극에 도달하지 못하면 전기의 생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성된 입자를 최대한 많이 전극에 도달하게 하는 기술은 태양 전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MEMO



속이 팍 찬 배추가 본디 **속부터**  
 단단하게 웅이지며 자라는 줄 알았는데  
 곁잎 속잎이랄 것 없이  
 저 벌어지고 싶은 마음대로 벌어져 자라다가  
 그 중 땅에 가까운 잎 몇장이 스스로 **곁잎** 되어  
**나비**에게도 **몸을 주고 벌레**에게도 **몸을 주고**  
**즐거이** 자기 몸을 빌려주는 사이  
**결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  
**알불\***을 달듯 속이 차오는 거라  
 마음이 이미 **길** 떠나 있어  
 품도 곧 길 위에 있게 될 늦은 계절에  
 채마밭 조금 빌려 **무심코** 배추 모종 심어본 후에  
 알게 된 것이다  
 빌려줄 몸 없이는 **저녁**이 없다는 걸  
 내 몸으로 짓는 **공양간** 없이는  
**등불** 하나 오지 않는다는 걸  
 처음자리에 **길**은 없는 거였다

- 김선우, 「빌려줄 몸 한채」 -

\*결구: 호배추나 배추 따위의 채소 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서 둥글게 속이 드는 일.

\*알불: 불이 이글이글하게 핀 숯 토막이 무엇에 싸이거나 담기지 않음.

### 확인문제

①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화자의 깨달음이 드러난다.	O   X
②	‘나비에게도 몸을 주고 벌레에게도 몸을 주고’에서 시어의 연쇄적 흐름을 알 수 있다.	O   X
③	화자는 ‘무심코’ 심은 배추를 키우는 일상적 경험을 통해 삶의 깨달음을 얻는다.	O   X
④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배추의 중요한 변화가 강조되고 있다.	O   X
⑤	‘저녁’과 ‘등불’의 대비를 통해 희생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부각하고 있다.	O   X
⑥	‘곁잎’이 자발적으로 ‘몸을 주’는 것은, ‘속부터’ 자라며 ‘결구’를 만드는 배추의 온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희생을 보여준다.	O   X
⑦	‘즐거이’ 배추를 먹는 ‘나비’와 ‘벌레’를 보아, 남을 위한 희생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를 엿볼 수 있다.	O   X
⑧	‘길’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는 배추가 자라는 것을 보기 전과 후가 다르다.	O   X





## "빌려줄 몸 한채" 정답 및 해설

### "빌려줄 몸 한채" 확인문제 정답

① O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화자의 깨달음이 드러난다.

- ▶ 1. <A: 빌려줄 몸 없이는 B: 저녁이 없다는 걸>
- 2. <A: 내 몸으로 짓는 공양간 없이는 B: 등불 하나 오지 않는다는 걸>
- ▶ 위와 같이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몸'을 빌려주고 '몸'으로 짓는 것과 같은 '희생'이 행위가 없으면 '저녁'과 '등불'과 같은 '결실'이 오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② X

'나비에게도 몸을 주고 벌레에게도 몸을 주고'에서 시어의 연쇄적 흐름을 알 수 있다.

- ▶ '연쇄'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와 같이 단어가 연쇄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지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나비'와 '벌레'는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O

화자는 '무심코' 심은 배추를 키우는 일상적 경험을 통해 삶의 깨달음을 얻는다.

- ▶ 화자는 '무심코' 배추를 심었다. 화자는 배추를 키우며 배추가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한다. 이를 통해 삶의 깨달음을 얻고 있으므로 적절한 선지이다.
- ▶ 배추가 자라며 변화하는 동안 배추를 키우고 관리하는 것은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일이 아니므로 '일상적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매번 반복되는 것을 '일상'이라 보면 되겠다.

④ O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배추의 중요한 변화가 강조되고 있다.

- ▶ <결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 / 알불을 달듯 속이 차오는 거라>라는 행의 '~는 거라'라는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속'이 '단단하게' 차오르는 배추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배추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변화이므로 적절한 선지이다.

⑤ X

'저녁'과 '등불'의 대비를 통해 희생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부각하고 있다.

- ▶ 이 시가 '희생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부각하는 시인 것은 맞지만, '저녁'과 '등불'은 대비되고 있지 않다. '저녁'과 '등불' 모두 '몸'을 통한 '희생'을 통해 얻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 ▶ 선지의 '사실적 판단'이 자주 출제되는 추세이므로, 이와 같은 선지 구성이 등장했을 때 지문의 '내용'에 대한 서술이 이루어진 부분을 놓치지 말고 정확히 판단하자.

⑥ X

'겉잎'이 자발적으로 '몸을 주'는 것은, '속부터' 자라며 '결구'를 만드는 배추의 온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희생을 보여준다.

- ▶ 지문에 따르면, '겉잎'은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므로 '자발적'으로 몸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배추의 온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라 해석 가능하다.
- ▶ 하지만, 이 시에서 배추는 '속부터' 자라지 않는다. 겉잎, 속잎 할 것 없이 마음대로 자라다가 땅에 가까운 것이 '겉잎'이 되어 몸을 내주는 것이다.

⑦ X

'즐거이' 배추를 먹는 '나비'와 '벌레'를 보아, 남을 위한 희생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를 엿볼 수 있다.

- ▶ '희생'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시는 맞지만, '나비'와 '벌레'가 배추를 '즐거이' 먹지는 않는다. 배추가 '즐거이' 몸을 내주는 것이지, '나비'와 '벌레'가 '즐거이' 먹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⑧ O

'길'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는 배추가 자라는 것을 보기 전과 후가 다르다.

- ▶ 배추를 키우기 전의 화자는 방황하고 있다. 이는 '길'을 대하는 화자의 '몸'과 '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 ▶ 그런데 배추를 키우고, 그 변화를 관찰하면서부터 화자는 <처음자리에 길은 없는 거였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빌려줄 몸 한채" 연계지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속이 팍 찬 배추가 본디 속부터  
 단단하게 웅이지며 자라는 줄 알았는데  
 겉잎 속잎이랄 것 없이  
 저 벌어지고 싶은 마음대로 벌어져 자라다가  
 그 중 땅에 가까운 잎 몇장이 스스로 겉잎 되어  
 나비에게도 몸을 주고 벌레에게도 몸을 주고  
 즐거이 자기 몸을 빌려주는 사이  
 결국\*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  
 알뜰\*을 달듯 속이 차오는 거라  
 마음이 이미 길 떠나 있어  
 몸도 곧 길 위에 있게 될 늦은 계절에  
 채마밭 조금 빌려 무심코 배추 모종 심어본 후에  
 알게 된 것이다  
 빌려줄 몸 없이는 저녁이 없다는 걸  
 내 몸으로 짓는 공양간\* 없이는  
 등불 하나 오지 않는다는 걸  
 처음자리에 ㉠길은 없는 거였다

- 김선우, 「빌려줄 몸 한채」 -

\*결구: 호배추나 배추 따위의 채소 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서 둥글게 속이 드는 일.

\*알뜰: 무엇에 싸이거나 담기지 않은 불등걸.

\*공양간: 절의 부엌을 이르는 말.

(나)

어물전 개조개 한 마리가 움막 같은 몸 바깥으로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죽은 부처가 슬피 우는 제자를 위해 관 밖으로 잠깐 발  
 을 내밀어 보이듯이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필과 물속에 오래 담겨 있어 부르튼 맨발

내가 조문하듯 그 맨발을 건드리자 개조개는 최초의 궁리인 듯 가  
 장 오래 하는 궁리인 듯 천천히 발을 거두어 갔다저 속도로 시간도  
 ㉡길도 흘러왔을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또 헤어져서는 저렇  
 게 천천히 돌아왔을 것이다늘 맨발이었을 것이다 사랑을 잃고서는  
 새가 부리를 가슴에 묻고 밤을 견디듯이 맨발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디었으리라

[A] 아 — 하고 집이 올 때  
 부르튼 맨발로 양식을 탁발하러 거리로 나왔을 것이다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섰다가  
 가난의 냄새가 벌벌벌벌 풍기는 움막 같은 집으로 돌아오면  
 아 — 하고 울던 것들이 배를 채워  
 저렇게 캄캄하게 울음도 멎었으리라

- 문태준, 「맨발」 -

\*탁발: 도를 닦는 승려가 경문(經文)을 외면서 집집마다 다니며 동냥하는 일.

0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비유적 표현을 통해 관찰한 대상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이 처한 상황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③ (가)는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④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화자의 정서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가)는 반어적 어조를 통해, (나)는 추측의 어조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 내고 있다.

02. ㉠과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삶에 대한 강인한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다.
- ② ㉠과 ㉡은 모두 현재 처지에 대해 조바심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다.
- ③ ㉠과 ㉡은 모두 자연의 순환 원리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상이다.
- ④ ㉠은 삶의 방향성과, ㉡은 삶의 속도와 관련된 대상이다.
- ⑤ ㉠은 관념의 전환으로, ㉡은 사회에 순응하여 얻게 된 대상이다.

03. <보기>에서 (나)의 [A]에 쓰인 ‘아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 묶은 것은?

[ 보기 ]

ㄱ. 가난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개조개의 심정이 담겨 있다.  
 ㄴ. 개조개와 울던 것들 사이에 발생한 외적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ㄷ. 개조개가 길거리로 나서게 되는 이유와 관련이 있다.  
 ㄹ. 탁발에 대한 기대가 좌절된 개조개의 한탄을 드러내고 있다.  
 ㅁ. 울던 것들에 대한 개조개의 책임감을 유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 04. &lt;보기&gt;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기 ]

(가)와 (나)는 자연물을 통해 인간의 삶의 이치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배추의 성장 과정을 통해 나눔과 희생을 실천하여 내적인 성숙을 이루며 타인과 공생할 때,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의 화자는 어물전의 개조개의 모습에 연민을 느낀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삶을 개조개의 삶과 동일시하여 인생에는 시련이 있지만 그로 인한 괴로움을 견뎌 내며 살아가게 된다고 생각한다.

- ① (가)에서 '배추'가 '속부터 / 단단하게 옹이지며 자라는 줄 알았'다고 한 것에는, 인간은 먼저 내적인 성숙을 이룬 다음에야 진정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화자의 깨달음이 담겨 있군.
- ② (가)에서 '배추'가 '땅에 가까운 잎 몇 장'을 '나비'와 '벌레'에게 준다고 한 것에는, 타인과 나누며 공생하려는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담겨 있군.
- ③ (가)에서 '즐거이 자기 몸을 빌려주는 사이'에 '결구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한 것에는, 참된 삶을 위해서는 자기희생이 필요하다는 화자의 깨달음이 담겨 있군.
- ④ (나)에서 '펄과 물속에 오래 담겨 있어 부르튼 맨발'을 '조문하듯' 건드린다고 한 것에는, 시련을 겪은 인간의 삶에 대한 화자의 연민 의식이 담겨 있군.
- ⑤ (나)에서 '어물전 개조개'가 '맨발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디었으리라'라고 한 것에는, 괴로움을 견뎌 내며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본질에 대한 화자의 성찰이 담겨 있군.

## MEMO



## "빌려줄 몸 한채" 연계지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떼를 저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 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 박목월, 「나무」 -

(나)

속이 팍 찬 배추가 본디 속부터  
단단하게 웅이지며 자라는 줄 알았는데  
걸잎 속잎이랄 것 없이  
저 벌어지고 싶은 마음대로 벌어져 자라다가  
그 중 땅에 가까운 잎 몇장이 스스로 걸잎 되어  
㉢나비에게도 몸을 주고 벌레에게도 몸을 주고  
즐거이 자기 몸을 빌려주는 사이  
㉣결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  
알불\*을 달듯 속이 차오는 거라  
마음이 이미 길 떠나 있어  
몸도 곧 길 위에 있게 될 늦은 계절에  
채마밭 조금 빌려 무심코 배추 모종 심어본 후에  
㉤알게 된 것이다  
빌려줄 몸 없이는 저녁이 없다는 걸  
내 몸으로 짓는 공양간 없이는  
등불 하나 오지 않는다는 걸  
처음자리에 길은 없는 거였다

- 김선우, 「빌려줄 몸 한채」 -

\*결구: 호배추나 배추 따위의 채소 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서 둥글게 속이 드는 일.

\*알불: 불이 이글이글하게 핀 숯 토막이 무엇에 싸이거나 담기지 않음.

05.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계절의 순환에, (나)의 화자는 특정한 계절에 주목하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나)의 화자는 더불어 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세계를, (나)의 화자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세계를 희망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여행자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통해, (나)의 화자는 실향민으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통해 가치 있는 삶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상을 보며 깨닫게 된 자신의 내면을, (나)의 화자는 한 공간에서 대상을 지켜보며 터득한 삶의 이치를 드러내고 있다.

0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짧은 의문문과 평서문을 연달아 배치하여 표현함으로써 나무로부터 받은 인상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삶의 모순에 대한 거부감을 열거와 영탄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대구를 통해 몸을 빌려주는 행위를 반복하여 표현함으로써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비유적 표현을 통해 배추의 결구가 생기는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⑤ ㉤:새로 알게 된 삶의 의미에 집중하기 위해 목적어를 뒤로 보내는 도치법을 사용하고 있다.

07.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시인에게 자연은 창작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데, 그 까닭은 자연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배경이자 삶의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연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말을 건네거나 감정을 교류하기도 한다. 그래서 시에서 자연은 때로는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계기로, 때로는 지친 삶을 위로해 주는 존재로, 때로는 감정이입의 소재로 나타나게 된다.

- ① (가)에서 화자는 여행길에서 만난 '나무'를 통해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되는군.
- ② (가)에서 화자는 '내 안에 뿌리를' 편 나무들의 여러 모습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었군.
- ③ (가)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나무는 화자에게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오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있군.
- ④ (나)에서 화자는 배추에게서 인간이 지녀야 할 삶의 태도를 배우고 있군.
- ⑤ (나)에서 화자는 배추의 성장을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되었군.

MEMO



# "빌려줄 몸 한채" 연계지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여성은 문학의 역사에서 늘 주변부로 밀려나 있었다. 대부분의 작가가 남성인 가부장제 사회의 문학 작품에서 인간의 삶은 남성의 시선으로 그려지고, 여성의 소외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간과되었다. 이는 여성이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삶을 강요받았던 사회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남성의 그것과 대등한 것으로 바라보는 평등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여성의 형상과 삶이 문학 작품에 그려지는 방식 역시 달라지고 있다. 여성의 목소리나 시선을 복원하여 그들의 소외된 삶을 조명하고 그들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간주하는 여성주의 시가 좋은 예이다.

여성주의 시는 창작의 목적, 혹은 여성에 대한 시선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 먼저 가정과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여성 차별의 문제를 고발하고 그들의 권익 회복에 문학적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향의 ㉠여성주의 시는 남성 중심 사회의 폭력성과 억압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전면에서 드러낸다. 특히 출산과 양육을 여성 고유의 영역으로 설정함으로써 오랜 세월 동안 여성에게 강요되었던 모성(母性)의 신화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는가를 여성 자신의 입장에서 고발하게 하는 것이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주목하여, 여성성 그 자체를 긍정하는 경향도 있다. 타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남성성의 원리 대신에 모든 것을 포용하고 길러내는 여성성의 원리, 혹은 모성성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경향의 여성주의 시에서는 여성, 즉 어머니의 몸에 내재한 자연 순환의 원리에 주목하기도 한다.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여성의 육체, 그리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은 문명의 타자이자 생명의 근원인 자연의 원리에 맞닿아 있다는 시각을 내세우는 것이다. 남성 중심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의 가능성을 자연과 여성의 근원적인 유사성에서 찾는 것이다. 문명에 의해 억압되었던 자연, 온갖 생명체를 차별 없이 품어 주고 길러내는 자연의 그 무궁한 생명력을 여성에 투영함으로써, 인간과 자연,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삶을 모색하는 에코-페미니즘이 그것이다.

(나)

딸아, 보아라,  
엄마의 발은 크지,  
대지의 입구처럼  
지붕 아래 대들보처럼  
엄마의 발은 크지,

엄마의 발은 크지만  
사랑의 노동처럼 크고 넓지만  
딸아, 보았니,  
엄마의 발은 안쪽으로 안쪽으로  
근육이 밀려 / 땀추의 흑처럼

문둥이의 콧잔등처럼  
땀겨 비틀러 뭉그러진 전족의  
기형의 신발 속에선 다섯 발가락

아니 열 개의 발가락들이  
도화선처럼 불꽃을 튀기며  
아파 아파 울고  
부엉부엉 후진국처럼 짓밟히어  
평생을 몸살로 시름시름 앓고

엄마의 신발 속엔  
우주에서 길을 잃은  
하얀 ㉡야생 별들의 신비한 날개들이  
감옥 창살처럼 ㉢종신수로 갇히어  
창백하게 메마른 ㉣쇠스랑꽃 몇 포기를  
조화(弔花)처럼 / 우두커니 걸어 놓고 있으니

딸아, 보아라,  
가고 싶었던 ㉤길들과  
가 보지 못했던 길들과  
잊을 수 없는 길들이  
오늘 밤 꿈에도 분명 살아 있어  
인두로 ㉥다리미로 오늘 밤에도 정녕  
떠도는 길들을 꿈속에서 꼭꼭 다림질해 주어야 하느니  
네 키가 점점 커지면서 / 그림자도 점점 커지는 것처럼  
그것은 점점 커지는 슬픔의 입구,

세상의 딸들은 / 하늘을 박차는  
날개는 가졌으나  
세상의 여자들은 아무도 날지 못하는구나,  
세상의 어머니는 모두 착하신편  
세상의 여자들은 아무도 / 행복하지 않구나……

- 김승희, 「엄마의 발」 -

(다)

속이 팍 찬 배추가 본디 속부터  
단단하게 웅이지며 자라는 줄 알았는데  
겉일 속일이랄 것 없이  
저 벌어지고 싶은 마음대로 벌어져 자라다가  
그 중 땅에 가까운 잎 몇장이 스스로 겉일 되어  
나비에게도 몸을 주고 벌레에게도 몸을 주고  
즐거이 자기 몸을 빌려주는 사이  
결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  
알불\*을 달듯 속이 차오는 거라  
마음이 이미 길 떠나 있어  
몸도 곧 길 위에 있게 될 늦은 계절에  
채마밭 조금 빌려 무심코 배추 모종 심어본 후에  
알게 된 것이다  
빌려줄 몸 없이는 저녁이 없다는 걸  
내 몸으로 짓는 공양간 없이는  
등불 하나 오지 않는다는 걸  
처음자리에 길은 없는 거였다

- 김선우, 「빌려줄 몸 한채」 -

\*결구: 호배추나 배추 따위의 채소 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서 둥글게 속이 드는 일.

08. (가)의 ㉠을 바탕으로 (나)의 ㉡~㉣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갈 곳을 잃은 ㉡의 모습은, 소외되고 차별된 삶을 강요받은 현실에서 좌절을 느끼는 여성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군.
- ② 절망적으로 갇혀 있는 ㉢의 모습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열등한 존재로 간주되어 평생을 살아온 여성의 절망감을 떠올리게 하는군.
- ③ 메마른 상태로 걸려 있는 ㉣는, 여성에게 강요되어 온 모성의 굴레로 인해 여성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가를 떠올리게 하는군.
- ④ 가고 싶었던 ㉡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남성과 다르다고 스스로 인식함으로써 모성의 고유한 가치를 재정립하려는 여성의 의지를 떠올리게 하는군.
- ⑤ 떠도는 길을 꼭꼭 누르는 ㉣는, 여성을 배제하고 억압하는 남성 중심주의의 세계관으로 인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수 없는 여성의 삶을 떠올리게 하는군.

09. <보기>를 참고하여 (나)의 시상 전개를 이해한 학생들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큰 발	㉡. 기형의 발	㉢. 아파 우는 발	㉣. 앓는 발	㉤. 갇힌 발
--------	----------	------------	---------	---------

발은 사람이 이동하고 땅을 지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체 기관이다. 발은 몸의 제일 아래쪽에 있고 먼지와 접촉하기 때문에 때로는 더러움을 상징하기도 하며, 신발 속에 갇혀서 신체의 하중을 견뎌야 하므로 고단함과 힘겨움을 상징하기도 한다.

- ① 학생 1: ㉠은 ‘대지의 입구’와 ‘대들보’의 거대함에 비유되어, 자식을 위해 노동을 하고 있는 ‘엄마’의 헌신적 사랑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 ② 학생 2: ㉡은 ‘뒹굴 비틀러 뭉그러진’ 모습으로 구체화되어, ‘엄마’의 역할로 제한되느라 본래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화자의 괴로움을 떠올리게 합니다.
- ③ 학생 3: ㉢은 ‘도화선처럼 불꽃을 튀기’는 모습과 연결되어, 화자가 강요받았던 삶이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힘겨운 것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 ④ 학생 4: ㉣는 ‘부엉부엉’, ‘시름시름’과 결합하여 ‘평생’을 구체화함으로써, 억압당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여성의 모습을 드러내려는 화자의 의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 ⑤ 학생 5: ㉤은 ‘신비한 날개’로 비유되지만 ‘아무도 날지 못하는’ 여성의 삶과 연결되어, 여러계약에 구속되면서도 삶의 무게를 견디는 ‘엄마’의 인내를 떠올리게 합니다.

10. (나)와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적 배경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대상의 속성을 구체화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자연물에 대한 관찰과 유추의 방식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여운을 남기며 시상을 종결하는 방식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1. (나)와 (다)의 화자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화자를 통해, (다)는 대상에게서 깨달음을 얻은 화자를 통해 삶의 진실을 전달하고 있다.
- ② (나)는 관습화된 인식을 거부하는 화자의 발화를 통해, (다)는 시적 청자에게 교훈을 전달하는 화자의 발화를 통해 세상살이의 이치를 전달하고 있다.
- ③ (나)는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화자의 발화를 통해, (다)는 자연물에 내재한 속성을 발견한 화자의 발화를 통해 부조리한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 ④ (나)는 이상적 삶의 모습을 구체화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다)는 자연 생태계가 순환하는 원리를 발견한 화자의 모습을 통해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다.
- ⑤ (나)는 과거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는 화자를 통해, (다)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화자를 통해 이루고 싶은 소망을 부각하고 있다.

12. (가)의 [A]와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김선우 시인은 인간과 자연이 합일을 이루고 삶과 죽음이 순환하는 질서를 자신의 시에 담아내고 있다. 특히 여성 고유의 자궁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심상을 그려 내는 모성적인 상상력을 보여줌으로써 만물을 잉태하는 자연의 모습이 모성성에 맞닿아 있음을 드러낸다. (다) 역시 희생을 전제로 생명이 탄생한다는 깨달음을 통해, 인간과 자연 간의 생태적 순환이라는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 ① ‘속이 팍 찬 배추’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② ‘스스로 걸일 되어 / 나비에게도 몸을 주고 벌레에게도 몸을 주’는 배추의 모습에서, 다른 생명체의 먹이가 됨으로써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군.
- ③ ‘결구가 생기’고 ‘속이 차 오는’ 배추의 이미지는 생명을 창조하고 돌보며 보살피는 어머니의 자궁과 연결되는 것으로, 자연과 모성이 맞닿아 있음을 떠올리게 하는군.
- ④ ‘내 몸으로 짓는 공양간 없이는 / 등불 하나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은, 생태적 순환의 기저에 깔린 희생성을 통해 만물이 유지될 수 있다는 화자의 깨달음을 보여 주는군.
- ⑤ ‘처음자리에 길은 없는 거였다’는 말로 시상을 끝맺은 것은, 모성적 존재로서의 비극적 운명을 여성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군.



## "빌려줄 몸채 한채" 정답 및 해설

### "빌려줄 몸채 한채" 확인문제 정답

1. ①

(가)에서는 '알뜰을 달듯'을 통해 배추의 속이 차 오는 모습을 빗대고 있다. (나)에서는 '죽은 부처가 슬피 우는 제자를 위해 관박으로 발을 내밀어 보이듯이'를 통해 개조개가 맨발을 내밀어 보이는 모습을 빗대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가)에서는 후각적 이미지가 활용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나)에서는 '가난의 냄새가 별별별별 풍기는 움막 같은 집'에서 후각의 시각화가 나타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는 거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수미상관 구조를 찾아볼 수 없다.
- ④ (가)에서는 '배추 모종'을 심기 전과 후의 인식의 차이가 드러나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정서를 볼 수 있으나 공간의 이동은 드러나지 않는다. (나)에서는 '개조개가 맨발을 내밀어 보이'는 모습과 그 후 '발을 거두어' 가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 따라서 '개조개'에 관심을 갖게 되다가 연민을 느끼게 되는 화자의 모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가)에서는 반어적 어조가 드러나지 않는다. (나)에서는 '-(으)ㄹ 것이다', '-리라'에서 추측의 어조가 드러나지만 이는 개조개의 삶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보여 주는 것일 뿐,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2. ④

'처음 자리에 길은 없다'는 것은 희생과 나눔이 있어야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깨달음과 관련되므로 ㉠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을 의미한다. ㉡은 '개조개'가 '천천히' 지나온 시간과 관련되므로, 개조개의 삶의 속도를 의미한다.

[오답 피하기]

- ① (가)의 화자는 '배추'를 통해 '자기 몸을 빌려주는' 것의 의미를 깨닫고 있고, (나)의 화자는 '개조개'를 통해 '개조개'의 삶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과 ㉡이 삶에 대한 강인한 의지를 불러일으킨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가)의 화자는 현재 '배추'를 보며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개조개'의 현재 처지에 대해 슬픔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가)와 (나)에서 화자가 자연의 순환 원리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⑤ (가)에서 '배추가 본디 속부터 / 단단하게 웅이지며 자라는 줄 알았'던 화자는 '배추'가 '즐거이 자기 몸을 빌려주며 자란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배추'의 성장에 대한 화자의 관념이 전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 '개조개'의 삶은 사회에 순응하며 얻은 것이 아닌, 고통과 시련을 통해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3. ③

- ㄱ. '아-'는 '가난'으로 인해 배고픔을 느끼며 울던 것들의 울음소리로, 개조개에게는 '슬픔'을 불러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 ㄷ. 울던 것들을 위해 개조개는 길거리로 나서서 탁발을 하게 된다.
- ㄴ. 울던 것들의 배고픔을 해소해 주는 '개조개'의 모습에서, '아-' 소리가 개조개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했음을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ㄴ. 개조개와 울던 것들이 외적으로 갈등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 ㄹ. 탁발을 통해 울던 것들의 배를 채우게 되었으므로 탁발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어 한탄하게 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4. ①

(가)의 화자는 배추가 자라는 과정을 관찰하며 자신이 이전에 품었던 '배추'가 본디 속부터 / 단단하게 웅이지며 자란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즉 배추는 '스스로 걸잎 되어' 자기 몸을 희생하며 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따라서 화자가 내적인 성숙을 이룬 후에 진정한 성장을 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② (가)에서 '나비에게도 몸을 주고 벌레에게도 몸을 주는 배추의 모습은 자신이 다른 생명체의 먹이가 되며 생명력을 얻는 것으로, 이는 타인에게 자신이 지닌 것을 나누며 공생하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가)에서 화자는 자신의 '몸을 빌려주는 사이 / 결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배추'의 모습을 통해 '내 몸으로 짓는 공양간 없이는 / 등불 하나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즉 배추의 성장 과정을 통해 희생의 미덕을 깨닫고 있는 것이다.
- ④ (나)에서는 '조문하듯' 개조개의 '부르튼 맨발'을 건드리는 '나'의 모습을 통해 고통과 시련을 겪은 존재에게 연민을 느끼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나)에서 화자가 '개조개'에 대해 '늘 맨발'로 고통과 시련을 견디며 살았을 것이라 추측하는 것을 통해 인간의 삶도 그와 같다고 생각하며 삶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⑤

(가)의 화자는 여행의 과정에서 만난 여러 나무의 모습을 통해 얻은 삶에 대한 생각과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배추가 자라는 과정을 관찰한 결과 알게 된 삶의 이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가)는 공간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를 보이고 있어 계절의 순환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나)는 배추의 모종을 심어 배추를 기르면서 발견한 삶의 태도에 주목하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자신이 깨달은 삶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을 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세계를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 (나)의 화자 역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세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6. ②

화자는 여행에서 만난 나무를 통해 인간의 삶이란 묵중하기도 하고, 침울하기도 하며, 때로는 고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를 ㉠과 같이 열거와 영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즉 묵중·침울·고독은 화자가 여행을 통해 발견한 삶의 모습으로, 화자는 이를 받아들이고 있기에 거부감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7. ①

화자는 여행길에서 만난 '묵중한', '침울한', '고독한' 나무를 통해 삶의 본질적인 고독을 깨닫고 있는 것이지, 적극적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된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 ② (가)의 화자는 나무가 자신의 안에 뿌리를 퍼고 있으며, 자신이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나무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나무에 대해 묵중하고 침울하고 고독하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
- ④ (나)의 화자는 배추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고 있다.
- ⑤ 배추가 처음부터 속이 꽉 찬 상태로 자라는 줄 알고 있었던 (나)의 화자는, 배추의 성장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된다.

8. ④

가 보지 못했던 길들과 / 잊을 수 없는 길들이 / 오늘 밤 꿈에도 분명 살아 있어라는 부분을 통해, ㉠ '길'은 남성과 평등한 존재로서 모든 것을 꿈꾸고 소망하는 여성의 욕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에 모성의 고유한 가치를 재정립하려는 여성의 의지가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피하기]

- ① 갈 곳을 잃은 ㉠ '야생 별'의 모습은, 차별적인 현실에서 좌절을 느끼는 여성의 모습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 ② 절망적으로 갇혀 있는 ㉠ '종신수'의 모습은, 남성 중심 사회의 억압 속에서 열등한 존재로 치부되어 평생을 살아온 여성의 절망감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 ③ 메마른 ㉠ '쇠스랑꽃'이 조화처럼 걸려 있는 모습은, 여성에게 강요되어 온 모성의 굴레로 인해 피폐해지는 여성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떠도는 길을 꼭꼭 누르는 ㉠ '다리미'는, 남성 중심주의의 세계관으로 인해 자신의 욕망을 발현시키지 못하고 억눌러 왔던 여성의 삶을 떠올리게 한다고 볼 수 있다.

9. ④

ㄹ '얇은 발'은 '부엉부엉', '시름시름'과 결합하여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온 여성의 삶의 모습으로 확장되고 있다. 억압당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여성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피하기]

- ① ㄱ '큰 발'은 '대지의 입구'와 '대들보'의 거대함에 비유되는 것으로, 자식을 위한 '엄마'의 헌신적 사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ㄴ '기형의 발'은 '입게 비틀려 뭉그러진' 모습으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는 '엄마'라는 역할에 제한되어 자신의 본래 개성을 잃어버린 화자의 괴로움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 ③ ㄷ '아파 우는 발'은 '도화선처럼 불꽃을 튕기'는 모습과 연결되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강요받았던 삶이 육체적으로 괴롭고 힘겨운 것이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ㄹ '갈탄 발'은 엄마의 신발 속에 갇힌 '신비한 날개'로 비유되지만 이는 마지막 연의 '세상의 여자들은 아무도 날지 못하는구나'를 통해 자유롭게 날지 못하고 여러 제약에 구속되는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보기>에서 말한 하중을 견뎌야 하는 발의 속성과 연결되는 것으로, 억압을 참고 견디는 '엄마'의 인내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10. ②

(나)에서는 엄마의 '발'을 구체화하여 여성의 삶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다)에서는 속이 차오르는 '배추'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희생적인 삶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다)에서는 '늦은 계절'에 모종을 심었다는 표현이 있지만 계절적 배경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에서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③ (다)에서는 배추가 자라는 과정을 관찰하여 희생적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유추의 방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으나, (나)에서는 이런 발상과 시상 전개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나)에서는 '딸아, 보아라', '엄마의 발', '점점 커지는' 등의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고 있으며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강조되어 있다. (다)에서는 '나비에게도 몸을 주고 벌레에게도 몸을 주고'에서 '몸을 주고'의 반복이 나타나지만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⑤ (나)는 말줄임표를 통해 여운을 남기며 시상을 종결하여 주제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으나 (다)는 여운을 남기는 시상 종결로 보기 어렵다.

11. ①

(나)는 딸에게 말하는 엄마를 화자로 설정하여 화자 자신이 성찰한 삶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고, (다)는 배추가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여 깨달음을 얻은 화자가 삶의 진실을 전달하고 있다.

- ② (나)는 여성의 억압된 삶에 대한 관습화된 인식을 드러내고 이를 화자의 부정적인 시선을 통해 비판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에서 화자가 시적 청자에게 교훈을 전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피하기]

- ③ (나)에서는 여성이 억압되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지만, (다)에서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④ (나)에서 화자가 이상적 삶의 모습을 구체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나)와 (다) 모두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⑤ (다)에서 화자가 미래에 대한 의지나 소망을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12. ⑤

'처음자리에 길은 없는 거였다'는 '빌려줄 몸 없이는', 즉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생태적 순환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다. 따라서 이를 모성적 존재로서의 운명을 여성이 비극적으로 인식하거나,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속이 꽉 찬 배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보기>에서 '만물을 잉태하는 자연의 모습이 모성성에 맞닿아' 있다는 설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행위 전반에 걸친 깨달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② '스스로 걸잎 되어 / 나비에게도 몸을 주고 벌레에게도 몸을 주는 배추의 모습은 <보기>에서 '삶과 죽음이 순환하는 질서'인 '생태적 순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생명체의 먹이가 됨으로 써 생명을 탄생시키는 자기희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 ③ '결구가 생기고 '속이 차오른' 배추의 이미지는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보기>에서 '여성 고유의 자궁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심상을 그려 내는 모성적인 상상력'과 연결된다. 이를 통해 자연과 모성이 서로 맞닿아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 ④ '내 몸으로 짓는 공양간 없이는 / 등불 하나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과정은 <보기>에서 '희생을 전제로 생명이 탄생한다는 깨달음'과 연결되는 것으로, 생태적 순환의 기저에 깔린 희생을 통해 만물이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